

WOW 1주차 강의자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인문]

[1문단] 계몽된 현대 사회에서 이성이 설정한 최고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다. 그 결과 자연은 목적 없는 단순 물질이자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전락한다. 오랫동안 자연의 지배를 받아 왔던 인간이 이제 자연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성 자체가 도구화됨으로써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비판능력 없는 추상적 자아만 보존된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렇게 진행된 인간의 승리가 자연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귀결된다고 진단한다. 이를 개념화하기 위해 그는 우선 내적 자연과 외적 자연을 구별하고 후자를 다시 인간적 자연과 비인간적 자연으로 나눈다.

[2문단]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가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 진행된다는 호르크하이머의 명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인간에 의한 외적 자연 지배는 내적 자연에 대한 억압을 수반한다. 인간은 외적 자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내면화하면서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연을 기계처럼 다루듯이 자기 자신도 도구적 이성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처럼 다루어야 한다.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자아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적 자연을 철저하게 억압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을 지배한다.

[3문단] 추상적 자아에 의한 내적 자연의 지배가 강자에 의한 약자의 지배 구조를 강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 사이의 지배 구조가 자아에게 내적 자연을 지배하도록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 자기 보존과 성공을 위해 인간이 자신의 내적 자연까지 가혹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냉혹한 지배자로부터 혹사당한 경험에서 벗어나려는 비극적 몸부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외적 자연에 대한 인간의 억압은 인간의 본래적 특성보다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4문단] 호르크하이머에 따르면, 외적 자연을 지배하기 위해 인간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억압의 주체인 이성과 자아에 대한 '원한 감정'을 더 키워 낸다. 특히 이중적 억압의 희생자로 전락한 다수의 대중이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대중은 한편으로 자신의 자연적 충동을 스스로 억압해야만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다 성공적으로 내적 자연을 통제된 사람들에 의해 지배받는다. 이와 같이 억압받은 대중의 내적 자연이 억압의 주체인 도구적 이성에 대해 품은 원한 감정은 폭동의 잠재력이 된다. 일·적으로 원한 감정은 그것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파괴 욕구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원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연을 억압하듯 타인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폭동을 일으킨다. 호르크하이머는 이를 '자연 폭동'이라고 부른다. 자연 폭동의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파괴적 공격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할 수도 있고 처음 본 사람을 목표로 할 수도 있다. 파괴의 대상은 이처럼 언제나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문단] 호르크하이머는 여기서 현대의 파시즘이, 대중이 품고 있는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배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현대적 파시즘은 내·외적 자연을 억압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체제에 자연 폭동의 잠재력을 포섭함으로써 보다 철저하게 대중을 착취한다. 예를 들어 나치는 도구적 이성에 의해 희생된 대중들이 가진, 이성에 대한 원한 감정을 유대인을 향한 자연 폭동으로 이끌어 낸 것이다. 그러나 자연 폭동은 억압된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압을 영속시키는 데 기여했다. 도구적 이성의 전면화에 대항하는 자연적 인간들의 야만적 폭동은 표면적으로는 이성을 비하하고, 자연을 순수한 생명력으로 추앙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성의 도구화를 촉진하였으며 내적 자연을 잔혹한 폭력의 주체로 발전시켰다. 이런 맥락에서 호르크하이머는 반이성적 자연 폭동은 도구적 이성의 지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본다. 이성을 거부하는 자연 폭동은 자연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족쇄를 채우는 데 이용될 뿐이기 때문이다.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반이성적 자연 폭동에 의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자연의 대립물인 이성이 먼저 비판적 사유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1. 위 글의 '자아', '이성', '자연'에 대한 이해로 옳은 것은?

- ① 외적 자연은 추상적 이성과 자아를 가지고 있다.
- ② 나에게 다른 사람은 외적 자연이면서 인간적 자연이다.
- ③ 나는 자아가 없는 내적 자연으로서 기계적으로 살아간다.
- ④ 과거에 자연이었던 것이 이제는 자연이 아니며 자아도 아니다.
- ⑤ 내적 자연이 자아를 지배한다면, 외적 자연은 이성을 억압한다.

2. 위 글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의 또 다른 형태이다.
- ② 자연적 욕망을 강하게 억제함으로써, 성공한 사람은 원한 감정을 갖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이 인간 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미화될 수 있다.
- ④ '자연 폭동'은 전체주의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의 권력을 강화한다.
- ⑤ 내적 자연을 통제하는 데 실패한 현대인은 외적 자연의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위 글에 제시된 '호르크하이머'의 입장에 대한 비판으로 타당한 것은?

- ① 이성이 비판 능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하면서 이성의 비판적 활동에서 희망을 찾는 것은 이미 사라진 것을 있다고 가정하는 자기모순이다.
- ② 개인적인 심리적 병리 현상으로부터 사회적 억압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개별을 보편으로 성급하게 환원시키는 일반화의 오류이다.
- ③ 자연을 자기 보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도구적 이성에 대한 비판은 자연 중심 사상을 가지고 이성을 격하하는 자기 기만이다.
- ④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주장은 자연이 기계처럼 작용한다는 검증되지 않은 명제를 가정한 허구이다.
- ⑤ 자연으로부터 해방된 인간이 자연을 억압한다는 비판은 '계몽'이라는 논점에서 일탈하고 있다.

2009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예비시험 [과학]

[1문단] 오존(O₃)은 산소 원자(O)와 산소 분자(O₂)가 결합하여 생성된 것으로, 희석하여 소독제로 사용할 정도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며 지상 대기 중에서는 식물의 엽록체와 인간의 폐 조직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오존은 생명체에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상층 대기에서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2문단] 지상에서 오존은 질소 산화물이 강한 태양 광선을 받아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다. 질소 산화물은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며, 대부분 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₂)의 형태로 배출된다. 산화질소는 오존과 마찬가지로 화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여 산소 원자와 결합하여 보다 안정된 이산화질소로 전환된다. 이산화질소는 태양 광선을 받으면 다시 산화질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산소 원자가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을 만든다. 오존이 생성되는 과정에 탄화수소가 촉매로 작용한다.

[3문단] 상층 대기의 오존은 주로 저위도의 성층권 하층에서 생성된다. 산소 분자가 자외선을 받아 산소 원자로 분해되고, 분해된 산소 원자가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여 오존이 생성된다. 이 과정에 질소 분자나 산소 분자가 촉매로 작용한다. 성층권은 최하부 대기층인 대류권의 상공으로부터 50km에 이르는 대기층인데, 공기의 연직 순환이 활발한 대류권과는 달리 상층일수록 기온이 높아져 대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성층권의 기온은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는 양에 비례한다. 오존은 성층권의 최하층에 대부분 존재하는데, 이 층을 오존층이라고 한다. 오존층 파괴는 항공기 운행과 핵실험 과정에서 배출되는 산화질소의 영향도 있지만, 이산화탄소와 함께 주요 온실 기체로 분류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CF₂Cl₂, 또는 CFC₁₂)에 주로 기인한다. 1920년대 말에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프레온 가스는 매우 안정하여 대류권 내에서는 햇빛에 노출되어도 분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긴 시간에 걸쳐서 대기 대순환 과정을 통해 지구 대기 전역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 프레온 가스는 성층권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분해되어 염소 원자(Cl)가 방출된다. 염소 원자는 오존과 화학 반응하여 산화염소(CIO)를 생성하고, 산화염소는 다시 산소 원자와 화학 반응하여 염소 원자로 돌아간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오존이 파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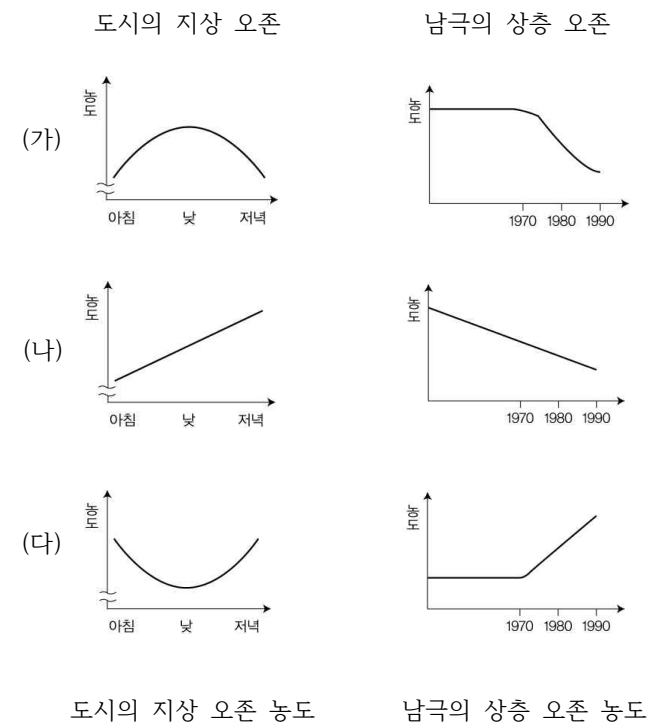
[4문단] 햇빛이 매우 약한 겨울철 남극 상공의 하부 성층권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회전하는 거대한 원형의 소용돌이가 형성된다. 그리고 대기 대순환에 의해 프레온 가스와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저위도로부터 소용돌이 내로 유입된다. 소용돌이로 유입된 공기 소용돌이 존재하던 수증기는 얼음 결정으로 변하는데, 이때 프레온 가스가 얼음 결정 속에 포집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겨울 동안 소용돌이 내에는 프레온 가스를 포집한 얼음 결정이 계속 적체된다. 봄이 되어 이 지역에 햇빛이 들면 소용돌이는 세력이 약화되어 와해되는데, 이때 얼음 결정이 녹으면서 포집되어 있던 프레온 가스로부터 염소 원자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방출되어 오존을 집중적으로 파괴한다. 남극의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가 개발된 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프레온 가스가 남극 상공까지 수송되어 축적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5문단] 한편, 북극의 소용돌이는 남극만큼 강하지 않아 그 모양이 구불구불하여 소용돌이 내의 공기와 주변 공기 간에 혼합이 많이 일어나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 이로 인해 오존층 파괴가 남극보다 덜하다. 그런데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성층권의 기온은 오히려 하강하게 되어 남극의 소용돌이뿐만 아니라 북극의 소용돌이도 더욱 강해지고 규모가 커질 수 있다고 한다.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증가하면 대류권에서는 온실 기체가 기온 상승을 가져오지만, 성층권에서는 성층권 특유의 열적 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기온을 하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지구 온난화에 수반되어 극지방 소용돌이의 강도 변화가 실제로 나타난다면 오존층 파괴의 양상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다.

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질소와 산소가 지상 오존 발생에 촉매로 작용한다.
- ② 프레온 가스는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
- ③ 오존층 파괴는 프레온 가스 배출이 많은 지역의 상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 ④ 성층권에서 오존을 만드는 산소 원자는 주로 산화염소가 분해되어 생성된다.
- ⑤ 성층권에서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고도와 기온이 가장 높은 고도는 일치한다.

8. 도시의 지상 온도와 남극의 상층 오존 농도의 변화를 바르게 나타낸 것끼리 묶인 것은? [3점]



- | | | |
|---|-----|-----|
| ① | (가) | (A) |
| ② | (가) | (B) |
| ③ | (나) | (B) |
| ④ | (다) | (A) |
| ⑤ | (다) | (C) |

9.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성층권의 오존층 파괴가 시작되는 시기는 봄 이후로 늦어진다.
- ②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감소되며 소용돌이 강도는 더 커진다.
- ③ 소용돌이 내에 농축되는 프레온 가스 양은 감소하게 된다.
- ④ 북반구의 자외선 강도가 남반구에 비해 더 커진다.
- ⑤ 북극 소용돌이의 형태는 더욱 구불구불해진다.

EBS 수능특강 B형 참조

(가) 그래 살아 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이 되어

살아봐야지
 쓰러지는 법이 없는 둥근
 공처럼, 탄력의 나라의
 왕자처럼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풀
 둥근 공이 되어

옳지 최선의 풀
 지금의 네 모습처럼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 정현중,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

(나) 나는 이 겨울을 누워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
 ㉠염주처럼 윤나게 굴리던
 독백도 끝이 나고
 바람도 불지 않아
 ㉡이 겨울 누워서 편히 지냈다.

㉢저 들에선 벌거벗은 나무들이
 추워 울어도
 서로서로 기대어 숲이 되어도
 나는 무관해서

㉣문 한 번 열지 않고
 반추 동물처럼 죽음만 꺼내 씹었다.
 나는 누워서 편히 지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 겨울.

- 문정희, 「겨울 일기」 -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점층적인 변주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강화하고 있다.
- ② (나)는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향했다가 다시 내부로 이동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속성을 제시한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수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 하였다.
-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태와 대비되는 자연 현상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정현중에게 육체는 영혼의 자유로움이 분출되는 장소이자 대상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작품 속에 비상의 꿈을 간직한 존재의 변형된 형태가 등장하게끔 만든다. 그에게 삶이란 비어 있으면서도 풍부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 상태로서 보기 흉하게 쭈그러든 일상의 삶을 부풀려 팽팽하게 비어 있게끔 해야 하는 대상이다. 따라서 정현중의 작품 세계는 끊임 없는 역동과 비상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가천대학교 김규진, 「정현중 시 연구」 인용

- ① ‘떨어져도 튀는 공’은 하강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과 괴리된 일상의 삶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탄력의 나라의 왕자’는 끊임없이 일상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투영된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
- ③ ‘가볍게 떠올라야지’, ‘곧 움직일 준비 되어 있는 풀’ 등을 통해 비상의 꿈을 가진 존재의 속명을 보여주는군.
- ④ ‘떨어져도 튀어 오르는 공’을 ‘최선의 풀’이라고 표현하는 화자의 태도는 삶의 부정적 속성 또한 감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⑤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을 통해 끊임없이 영혼의 자유로움을 분출하려는 육체의 역동적 속성을 확인할 수 있어.

12.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서 화자가 처한 상황을 시각적으로 더욱 구체화하고 있다.
- ② ㉢은 ㉣과 모순되는 상황으로서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 ③ ㉢은 ㉡의 상황에 처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 ④ ㉢은 ㉠과 연결되어 화자의 외로운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은 ㉡의 원인으로서 전체적인 시상 전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BS 수능특강 B형 실전모의고사 1회 참조

밤늦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찰스 램과 ㉡찰스 디킨스였다. 나하고는 전혀 인연이 안 닿는 땅에서 동떨어진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갈마들이*로 나를 깨어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었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점 말고도 그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선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점이 그렇고, 문학 작품을 통해서 빈민가의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쏟은 점이 그런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성(姓)이 각각이듯이 작품을 떠난 실생활에서의 그들은 성격이 판판이었다 한다. 램이 정신 분열증으로 자기 친모를 살해한 누이를 돌보면서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는 동안 글과 인간이 일치된 삶을 산 반면에, 어린 나이에 구두약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독학으로 성장한 디킨스는 훗날 문명을 떨치고 유족한 생활을 하게 되자 동전을 구걸하는 빈민가의 어린이들을 지팡이로 쫓아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램이 옳다면 디킨스가 그른 것이고, 디킨스가 옳다면 램이 그르게 된다. 가급적이면 나는 램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러나 디킨스의 궁둥이를 걷어찰 만큼 나는 몇몇한 기분일 수가 없었다.

(중략)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도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잇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만 골몰한 나머지 빌려졌다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A] 생각도 못 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 하는 주제에 막별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이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 일 가지고 어느 해에 빚을 갚을 것인가.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엔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 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입니다.”

“지금 내 형편에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 걸어서 내가 보증을 서마고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 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야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 보세요.”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하다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였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 내기가 수월치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짓가랑이 뒤에다 두어 번 문질렀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 많았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썹거리더니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하다든가 잘 먹고 잘 살라든가 하는 말이 날아와 내 이마에 탁 놓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것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 봐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 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막한 체구를 연방 휘청거리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고팽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별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삼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이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팍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암만의 빛을 지고 있음을 퍼뜩 깨달았다. 전셋돈도 일종의 빛이라면 빛이었다. 왜 더 좀 일찍이 그 생각을 못 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의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닦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건네자 금테의 마비츠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셋방 주인일 따름인 걸 알고는 혀를 찼다.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정말 여러 질이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셨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 번 안 비치지 뭐 [B] 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질이듯이 아버지 노릇 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질일 겁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의 귀에 농담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랐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테 안경의 상대방은 한 차례의 너털웃음으로 그걸 간단히 능처* 버렸다.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 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거들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냥*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곤 너무도 쉽게 끝났다.

- 윤희길, 「아홉 켈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

* 갈마들이 : 서로 번갈아 드는 것.

* 썰면 : ‘입술이 썰면 한 접시가 될 것 같은 동료 교사의 별명.

* 척분 : 성이 다르면서 일가가 되는 관계.

* 능처 : 어떤 행동이나 말 따위를 문제 삼지 않고 넘기어.

* 암냥 : 물건을 호송함. 압령(押領)의 변한 말.

1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식의 흐름기법을 활용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을 권위적으로 논평하여 주제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시대적 배경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사회 현실의 문제를 실감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그의 내면에 공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⑤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4. 윗글의 [A]와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는 ‘나’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권 씨’의 삶을 독자에게 소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독자에게 인식되는 ‘권 씨’와 ‘나’에게 인식되는 권 씨의 모습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권 씨’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이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동시에 독자의 혼란 또한 가중될 수 있다.

가천대학교 신승희,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에 대한 분석」 인용

- ① [A]에서 ‘그’에 대한 ‘나’의 소개는 독자가 ‘그’가 ㉠과 같이 말한 배경을 추측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A]에서 ‘나’가 ‘그’에 대해 갖는 태도를 통해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는 ‘그’의 삶의 행적을 유추해볼 수 있다.
- ③ [A]에서 묘사된 ‘그’의 표정은 ㉠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증가시키고 있다.
- ④ [A]의 ‘그’에 대한 ‘나’의 평가와 ㉠에서 드러나는 ‘그’의 과거가 모순되는 모습에서 독자는 인식에 혼란이 올 수 있다.
- ⑤ [A]와 ㉠ 모두 1인칭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독자의 인식과 ‘나’의 인식에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다.

15. ㉡과 ㉢에 대한 ‘나’의 태도를 고려하여, [B]를 감상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가 척분도 없이 ‘권 씨’를 도운 것은 ㉡의 삶의 태도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다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수용하는 모습은 ㉡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권 씨 부인’을 살리기 위해 ‘보증금’까지 아낌없이 내주는 ‘나’의 모습은 ㉢의 삶의 태도와 상반되는군.
- ④ ‘원장’이 ‘나’의 진심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은 ㉡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 ⑤ ‘나’가 ㉡을 지향하면서도 ㉢을 확신 있게 부정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현실과 이상과의 괴리를 엿볼 수 있군.

16.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소설 속의 등장인물의 말이나 행동의 바탕에는 심리적인 동기가 깔려 있게 마련이다. 때로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형성된 강박 관념이나 자의식(自意識), 무의식 등이 말이나 행동에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EBS 수능특강 8형 실전문의고사 1회 37번 <보기> 인용

- ①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환경에 대한 거부감이 무의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자신을 둘러싼 경제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밑바탕에 깔려 형성된 강박 관념이라고 볼 수 있다.
- ③ 현실의 궁핍함에서 느끼는 패배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자의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내면 의식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를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담겨 있다.
- ⑤ 약자를 소외시키는 도시 문명의 비정함에 대해 적극적인 저항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그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형태소의 원형을 고정시켜 표기하는 것이다. 형태소는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면서 그 형태가 변동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가령 '엮-'은 뒤에 오는 어미에 따라 '엮어[어퍼], 엮고[업꼬], 엮는[업는]'과 같이 그 발음이 '[엮], [업], [엄]'으로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간을 '엮'으로 적는다. 이것은 형태소의 원형을 고정시켜 표기한 예에 해당한다.

- ① '흐르고, 흐르니, 흘러, 흘러서'에서의 어간 표기
- ② '여덟이, 여덟을, 여덟도, 여덟만'에서의 체언 표기
- ③ '문으로, 집으로, 하늘로, 학교로'에서의 조사 표기
- ④ '막아서, 잡아서, 먹어서, 접어서'에서의 어미 표기
- ⑤ '깨닫고, 깨달지, 깨달아, 깨달으니'에서의 어간 표기

18.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 >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

< 띄어쓰기의 하위 조항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 ㉤

- ① ㉠ : '눈물'은 '눈'과 '물'로 이루어졌지만 한 단어로 굳어진 합성어이므로 붙여 쓴다.
- ② ㉡ : '서울에서조차도'의 '에서', '조차', '도'는 모두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③ ㉢ : '먹을 만큼 먹었다'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④ ㉣ : '자동차 한 대'의 '대'는 단위를 나타내므로 띄어 쓴다.
- ⑤ ㉤ : '베어 물다'의 '물다'는 보조 용언이므로 '베어물다'로 붙여 쓸 수 있다.

19.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붙임표(-)의 용법
(1) 사전, 논문 등에서 합성어를 나타낼 적에, 또는 접사나 어미임을 나타낼 적에 쓴다.
예 겨울-나그네, 슬기-롭다, 닷-, -(으)르걸
(2) 외래어와 고유어 또는 한자어가 결합되는 경우에 쓴다.
예 나일론-실, 영화-칼럼

- ① '-지만'과 같이 어미만 따로 제시할 때에는 어미 앞에 붙임표(-)를 표시한다.
- ② '맨-'과 같이 접두사만 따로 제시할 때에는 접두사 뒤에 붙임표(-)를 표시한다.
- ③ '열-에너지'와 같이 한자어와 외래어가 결합한 단어는 중간에 붙임표(-)를 표시한다.
- ④ '더듬-이'와 같이 접미사가 결합된 파생어는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 붙임표(-)를 표시한다.
- ⑤ '잡-아서'와 같이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어간 뒤에 붙임표(-)를 표시한다.

20. <보기>는 문법 요소와 관련한 중의문의 예이다. ㉠~㉣을 고쳐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학생들이 전부 오지 않았다.
㉡ 우리는 아이를 차에 태웠다.
㉢ 누가 그 시를 좋아합니까?
㉣ 형이 넥타이를 매고 있습니다.
㉤ 포수 둘이 참새 세 마리를 잡았다.

- ① ㉠ → 학생들이 전부는 오지 않았다.
- ② ㉡ → 우리는 아이를 차에 타게 했다.
- ③ ㉢ → 어떤 사람이 그 시를 좋아합니까?
- ④ ㉣ → 형이 넥타이를 매는 중입니다.
- ⑤ ㉤ → 포수 둘이 각각 참새 세 마리를 잡았다.